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

이순령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학예사)



1. 연혁 및 개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관장 김달진, 이하 김달진박물관)은 2001년 종로구 평창동에 개소한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시작으로 2007년 종로구 통의동에서 미술자료실을 개관하고, 2008년에 서울시 전문 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면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으로 정식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창성동과 마포구 창천동 시기를 거쳐, 2015년 종로구 홍지동으로 이전, 재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달진박물관은 단행본·정기간행물·육필원고·친필편지·사진을 비롯하여, 전시를 위한 팸플릿·티켓·포스터와 D폴더(작



홍진기창조인상 시상식에서 (좌부터)홍석현(중앙일보·JTBC 사장)·김달진·이홍구(유민문화재단 이사장), 2016년



김달진 관장과 D폴더

〈해방전후 비평과 책〉(2010), 〈195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의 해외진출 - 전개와 위상〉(2011),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 : 1950~2011 전〉(2012), 〈한국근현대미술 전시자료의 변천〉(2012), 〈한국미술단체 100년〉·〈한국근현대 미술교과서〉(2013), 〈한국미술 공모전의 역사〉(2014), 〈한국미술 전시공간의 역사〉(2015),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2016) 등이 있다. 이외에도 기증전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시 자료의 상세 정보와 함께 비평가 및 전문연구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소논문들을 수록한 단행본을 발간하여, 전시가 주제별 아카이브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14년 김세중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한국미술 저작 출판상 수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박물관 2층에 자리한 한국미술정보센터를 통해 소장자료를 공개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단행본과 기록물 등의 소장 자료 열람 서비스 외에도 김달진박물관 홈페이지(www.daljinmuseum.com)와 한국미술정보센터 홈페이지(www.artarchives.kr)를 통해 주요 소장품 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전국박물관소장품 검색 시스템인 ‘e-뮤지엄’ (www.emuseum.go.kr)을 통해서

가 개인파일)·작품 등 30,000여 점이 넘는 한국근현대미술 관련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자료 전문 아카이브 박물관으로서, 한국근현대미술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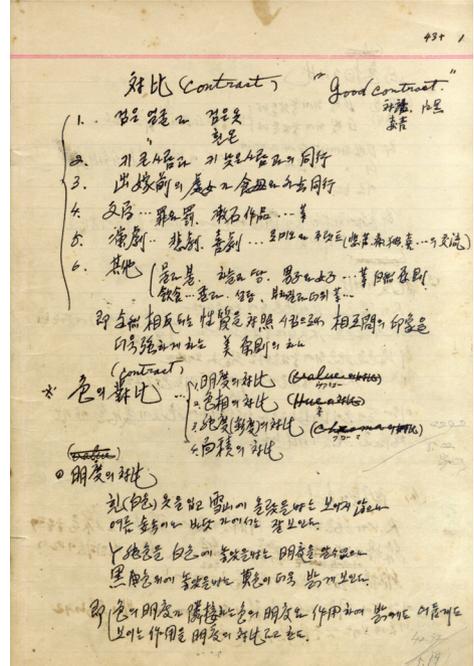
김달진박물관은 2008년 개관 이래 1년에 2회 이상 기획전을 개최하여, 한국근현대미술사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주요 전시로는 개관전인 〈미술정기간행물 1921~2008〉(2008), 〈한국미술사+화가의 초상〉(2009),



〈작가가 걸어온 길〉 실내전경, 2016년

도 주요 소장 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달진 관장은 2002년 1월에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하고, 미술정보포털 달진닷컴(www.daljin.com)을 운영하여 미술계의 동향과 주요 전시 및 도서 소개와 한국근현대미술가 및 관계자 인명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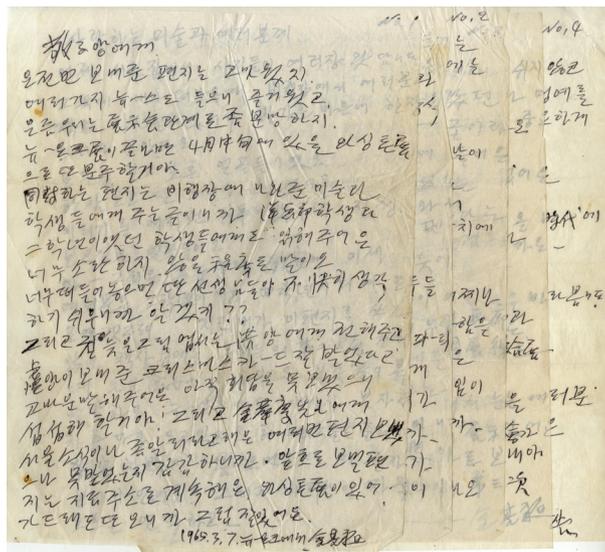
김달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은 김달진 관장이 중학교 시절부터 잡지나 신문에서 수집한 기사나 화가의 작품 도판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후 한국근현대미술자료의 보존에 대한 김달진 관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많은 뜻있는 분들의 기증을 통해 소장품은 질적·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김달진 관장의 특별한 이력은 2013년 중학교 도덕교과서2(금성출판사)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다 - 김달진」이라는 제



류경채 친필노트, 1950, 26×18cm, 서진수 기증



김기창이 심경자에게 보낸 편지 봉투, 1965, 11×24cm, 심경자 기증



김기창이 심경자에게 보낸 편지, 1965, 28×21cm, 심경자 기증

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또한 2013년에는 한국아카이브협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회장으로서 아카이브관련 학술활동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종로구 사립박물관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역 공동체의 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박물관의 다양성 제고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문화예술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2010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상)을, 2016년에는 흥진기창조인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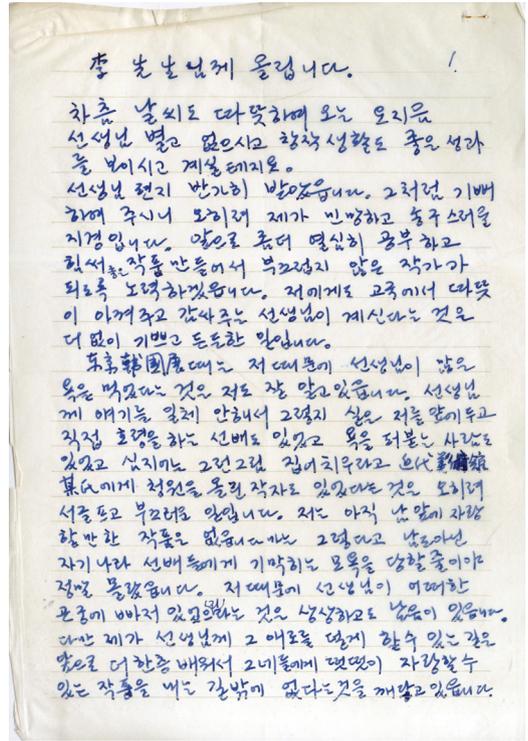
2. 전시실 및 기획전시·교육프로그램 안내

김달진박물관은 2개의 기획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1기획전시실에서는 <작가가 걸어온 길 - 화가와 아카이브>展(4월 29일까지)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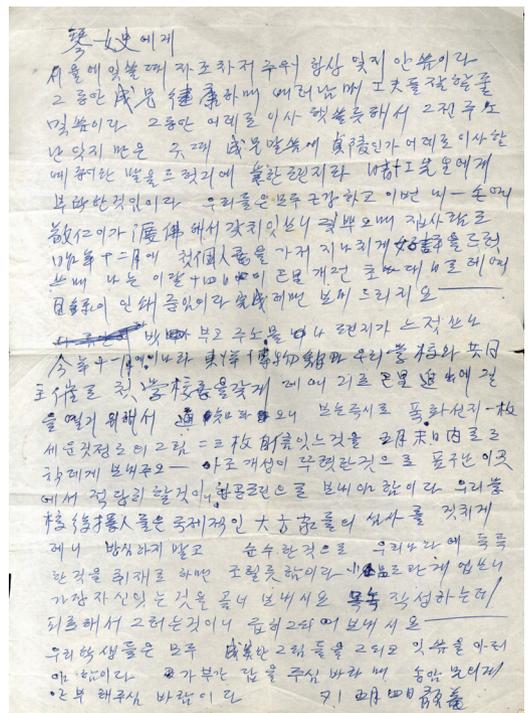
라는 대전제 아래 창작하는 사람과 아카이빙 (archiving, 파일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수집한 아카이브를 통해 작가가 살아 왔던 환경과 그 속에서 비롯된 삶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작품을 통해 본 창작자로서의 화가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독창성이 부각되지만, 아카이브를 통해 본 화가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존재들로서 친근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아채야 하는 화가의 세계를 탐색하는 데에 아카이브의 존재는 더욱 값어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카이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아카이빙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를 만들고자 전시를 기획하였다.

주요 전시 유물로는 생활미술로서의 색의 대한 글과 1953년 색채학 졸업시험과 1957년 1학기 색채학 시험 출제문제 등이 적혀 있는 <류경채 친필노트>(1950년대), 김기창이 미국 뉴욕 체류 중 1965년 3월 7일에 제자 심경자와 수도여자사범대학교 미술과 학생들에게 보낸 <김기창 친필 편지>(1965), 이우환이 논문 「사물에서 존재로(事物から存在へ)」를 언급하면서, 1969년 5월초에 있는 <현대일본미술전>에 출품할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바쁘게 지내고 있음을 알리고, <제5회 국제청년미술가전>에서 일본문화포럼상(日本文化フォーラム賞)을 수상한 내용과 작품 사진·카탈로그를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이우환이 이세득에게 보낸 편지>(1969), 동양박물관과 공동주최로 1971년 11월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필요한 작품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이응노가 금동원에게 보낸 친필편지>(1971) 등 400여 점의 화가 관련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2013년부터 <라키비움 프로젝트>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전시와 관련해서는 일반인 참여형 강연 프로그램과 어린이와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환이 이세득에게 보낸 편지, 1969, 25×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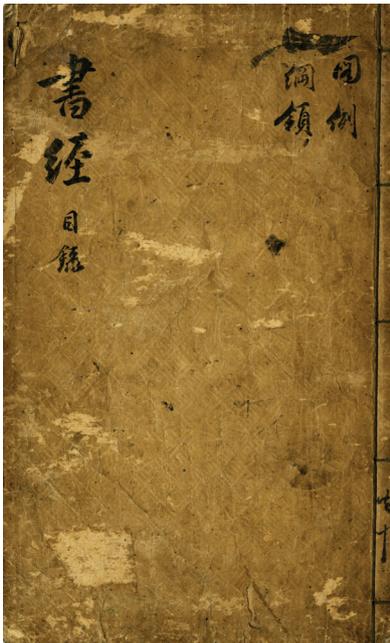


이응노가 금동원에게 보낸 편지, 1971, 31×21cm, 금동원 기증

3. 대표 소장유물 소개

황제비 『서경대전』

‘강희정유신전(康熙丁酉新鐫)’ 과 ‘옥옥당장판(郁
郁堂藏板)’이라는 기록을 통해 간행 시기와 장소를
파악할 수 있다. 교정한 사람은 청대(清代) 한림원
관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제비(黃際飛)라는 인
물인데 자세한 기록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 박물관
소장 『서경대전』은 채침(蔡沈, 1167~1230)의 『서집
전(書集傳)』을 바탕으로 명나라의 호광(胡廣, 1370~
1418) 등이 그동안의 주석서를 모아 성리학적인 입
장에서 편집한 내용을 다시 청나라 강희 연간에 들어
와 교정한 것이다.



黃際飛, 『書經大全』, 1717, 25×15cm, 郁郁堂, 유양옥 기증

이시이 타미지 『조선아동화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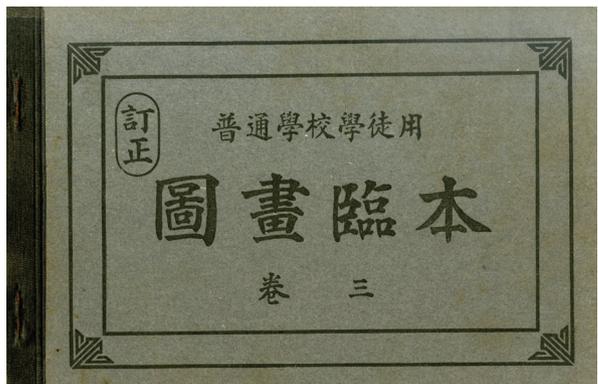
구한말 조선 아이들의 놀이와 풍속을 다룬 책
으로, 저자인 이시이 타미지(1865~1943)는 책의
서문에서 당시 원산진(元山津)에 거주하던 일
본인 나이토 세이지(內藤盛治)의 도움을 받아
책이 만들어진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기산 김준근(箕山 金俊根)의 그림 10점에 대한 해설을
붙인 화담(畫談) 형식을 취하여, 조선의 풍속에 대해
전하고 있다.



石井民司, 『朝鮮兒童畫談』, 1891, 15×11cm, 日本 學齡館

조선총독부 『정정 보통학교학도용 도화임본 권3』
1911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미술교과서이다. 명
칭으로 사용된 임본(臨本)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대로 보고 베끼는 화본
(畫本)을 집약한 책이다. 내용을 보면 1·2권에서는
단순한 선과 도형에 대한 표현을 연습하도록 하였으
며, 3·4권에는 좀더 복잡한 인물 및 형태를 습득하
는 한편, 간단한 농담표현도 다루도록 구성되었다.



朝鮮總督府, 『訂正 普通學校學徒用圖畫臨本 卷三』,
1911, 15×23cm, 朝鮮總督府

김규진 『육체필론습자첩』

전서·예서·팔분·해서·행서·초서 등 6체를 쓰는 방법과 필획을 설명하고, 습자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다. 마지막 장에 김규진(1868~1933) 낙관이 찍혀 있다.



金圭鎭, 『六體筆論習字帖』, 1913, 62×10cm, 古今書畫館

김규진 『신편 해강죽보』

이 책은 서예와 전통회화에 뛰어났던 김규진의 저서로 대나무 그리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이다. 김규진은 어렸을 때부터 가학(家學)으로 전통서화를 익혔고, 1885년부터 1894년까지는 중국으로 유학하여 서화공부를 하였다. 귀국 후 조정에서 관리로 근무하면서 영친왕 이은(英親王 李垕, 1897~1970)에게 서예를 가르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圭鎭, 『新編 海岡竹譜』, 1918, 26×19cm, 匯東書館

김규진 『서법진결』

이 책은 김규진이 설립한 근대식 미술교육기관인 서화연구회에서 교육 학습서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책으로, 본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1921년 8월에 재발행된 것이다. 본문은 한문·국한문혼용문·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문으로의 번역은 김규진의 동생 김태진이 했다고 일문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책의 내용은 역대의 중요 용필법과 서론(書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만이 아닌 다양한 삽도를 활용하여 학습서로서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



金圭鎭, 『書法眞訣』, 1921, 23×17cm, 京成 匯東書館

안중식 『심전화보』

안중식은(1861~1919) 한말의 서화가로 왕실의 어



安中植, 『心田畵譜』, 1919, 26×18cm

진화사였으며, 서화협회 초대회장을 지내는 등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그러나 3.1운동과 관련하여 내란죄로 옥고를 치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 작품은 작가의 화력(畫歷)을 알 수 있는 화보로서, 1919년 서화협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던 <안중식 유묵전>과 아울러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불화·고사인물도·영모도·산수도 등 총 25점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요시다 에이자부로 『조선서화가열전』

『조선서화가열전』은 조선의 서화가 5백 명의 짧은 전기를 모아, 성(姓)·자(字)·호(號) 등의 획수에 따라 배열한 열전형식의 책이다. 초판본의 경우 오세창의 『근역서화징(權域書畫徵)』보다 13년 먼저 발행되었다. 저자인 요시다 에이자부로는 서문에서 『조선지(朝鮮誌)』 저술을 위한 자료조사 차원에서 조선의 서예가와 화가에 관한 전기를 수집하고 번역하여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서화가 5백 명의 짧은 전기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시정(施政) 기념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 1915.9.11~10.30) 개최에 맞춰 본서를 집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본 박물관 소장본에는 이경성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吉田英三郎, 『朝鮮書畫家列傳』, 1920, 18×13cm, 경성일보사

홍방현 『서화협회회보』 창간호 · 『서화협회회보』 제2호 중간호

서화협회는 1918년 5월 19일 민족서화가 13인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결성된 근대적이고 본격적인 민간 미술단체이다. 1921년 4월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미술 전시인 <제1회 서화협회展>을 개최하고 같은 해 10월 협회 기관지인 『서화협회 회보』 창간호를 발간한다. 창간호는 1921년 10월 25일 홍방현을 발행인으로 경성서화협회에서 발간하였고, 당시 가격은 40전이었다. 판권 뒷면인 22쪽에 수록된 「회고(會告)」란을 살펴보면 '1년에 4회씩 발행하고자 한다'는 항목이 있어 애초에 계간지로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본 박물관 소장본에는 서지학자 남애 안춘근(南涯 安春根, 1926~1993)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洪邦鉉, 『書畫協會會報』 창간호, 1921.10.25, 20×28cm, 서화협회

야나기 무네키 『조선의 미술』 · 『공예미론』 · 『공예』

야나기 무네키(柳宗悅, 1889~1961)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미술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학자이다.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을 스무 차례에 걸친 조선답사와 조선백자의 수집 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입장에서 조선미술사를 기술하려고 했으며, 공예의 민중적 가치에 대해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의 미술』은 1922년 『신조(新潮)』 1월호에 게재된 원고를 동년 3월에 정정하고 가필(加筆)하여 소책자로 만들어졌으며, 야나기 무네요시의 조선미술에 대한 주요 개념을 피력한 초기원고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또한 야나기 무네요시는 공예를 보다 실용적이고 민중적인 입장에서 생활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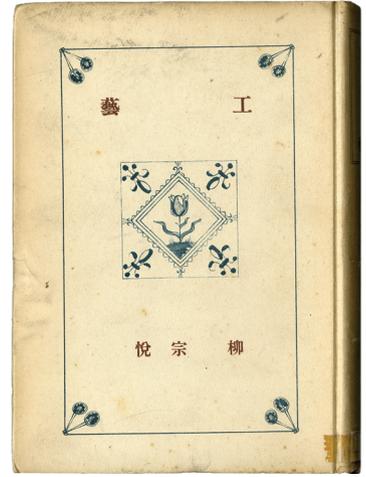
을 담고 있는 물품(物品)이라는 동양적 사고를 대치시켜 공예이론을 피력하였다. 본인이 편집하고 있던 잡지 『공예』(1931)를 통해 이러한 그의 공예관은 민예(民藝)라는 명칭으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고, 저자의 민예에 대한 이론과 경험을 체계화한 저작이 바로 『공예미론』과 『공예』이다.



柳宗悅, 『朝鮮の美術』, 1922, 28×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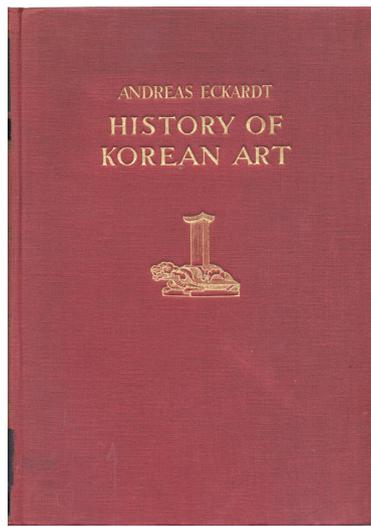
柳宗悅, 『工藝美論』, 1929, 20×15cm, 萬里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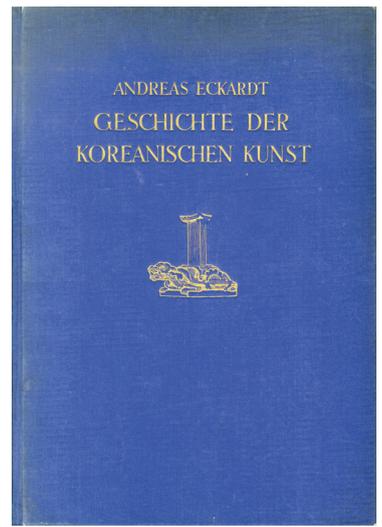
柳宗悅, 『工藝』, 1942, 18×13cm, 창원사(동경, 創元社)

안드레 에카르트 『조선미술사』 영문판 · 독일어판
1909년 베네딕트 수도회 신부로 조선을 방문한 안드레 에카르트(Andreas Eckardt, 1884~1974)가 20년간 조선에 체류하면서 조선미술과 건축을 실견하고 답사하여 연구한 결과물이다. 1928년에 저자가 독일로 돌아가고, 이듬해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당대의 미술사적 연구경향이었던 양식론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조선미술에 대한 통사적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 서문에서 저자가 밝혔듯이, '조선미술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은 이 책의 근간을 이루는 주제

개념이며, 마지막 결론에서 저자는 조선미술의 특질을 '간결성(simplic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Andreas Eckardt 『History of Korean Art』 영문판, 1929, 29×22cm, London : Edward Goldston, 영국



Andreas Eckardt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독일어판, 1929, 30×21cm, Verlag Karl W. Hiersemann, 독일

『박물관진열품도감』4~17집

『박물관진열품도감』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발행한 소장 유물 도록으로 1918년부터 1943년까지 총 17집이 발행되었다. 본 박물관에서는 4집부터 17집까지, 14권을 소장하고 있다. 도록에 수록된 유물은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학술발굴조사 결과 습득한 선사시대 유물을 비롯하여, 낙랑·삼국·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의 유물이 망라되어 있다. 가장 많이 수록된 유물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유물이며, 조선시대와 고구려의 유물은 매우 적다. 반면에 낙랑 및 중국과 연관된 유물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유물 사진과 함께 수록된 유물 설명의 본문은 일문으로 쓰고, 유물 상세 내용은 영문으로도 병기되어 있다.

김주경·오지호, 『오지호·김주경 2인화집』

『오지호·김주경 2인화집』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최초의 원색화집으로 1930년대 근대화단의 다양한 경향 가운데 인상주의 화풍의 정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주요자료이다. 김주경(金周經, 1902~1981)과 오지호(吳之湖, 1905~1982)는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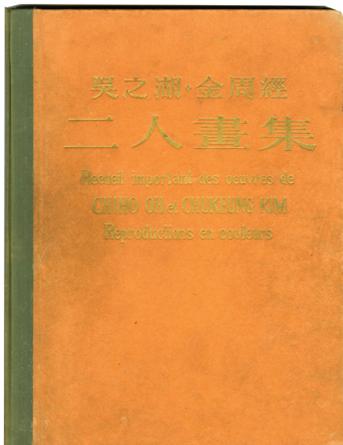


『博物館陳列品圖覽』4~17, 1932~1943, 32×23cm, 조선총독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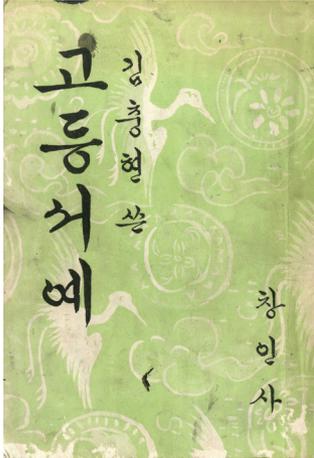
고 귀국하여 녹향회 등을 통해 한국의 맑고 청아한 자연을 화폭에 담았으며, 특히 이 화집에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에 걸친 두 작가의 주요 작품이 10점씩 수록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각각의 칼라도판 앞에 해당 작품에 대한 작가노트 및 창작시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집 말미에는 오지호의 「순수회화론(純粹繪畫論)」과 김주경의 「미(美)와 예술(藝術)」 같은 예술론도 수록되어 두 작가의 작품관을 엿볼 수 있다.

김충현 『고등서예』

20세기에 활동하며 한글 서예의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예가 김충현(金忠顯, 1921~2006)이 쓴



金周經·吳之湖, 『吳之湖·金周經 二人畫集』 국문판 및 일본판, 1938, 33×27cm, 漢城圖書株式會社



金忠顯, 『고등서예』, 1957, 26×19cm, 창일사

고등학교 서예 교과서로, 붓글씨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과 글씨본이 수록되어있다.

〈인간가족 대사진전〉 리플릿

이 전시는 에드워드 J. 스타이켄(Edward J. Steichen, 1879~1973)이 1955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기획한 사진전이다. 이 전시는 68개국의 273명에 이르는 사진작가가 촬영한 503점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



〈The Family of Man〉 리플릿, 1957, 26×19cm, 미국공보관

다. 세계 85개 도시에 걸쳐 순회 전시회를 가져 약 7백만 명이 관람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57년 경북공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전쟁과 평화라는 가치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박물관에서는 뉴욕현대미술관에서 1955년에 발간한 영문판 도록도 소장하고 있다.

김달진, 『서양미술 스크랩북』 10권

김달진 관장이 서양미술 도판을 스크랩하여 시대·유파·작가별로 정리하여 만든 10권의 스크랩북이다. 1권 르네상스, 2권 바로크, 3권 로코코, 4권 고전·낭만·자연·사실파, 5권 인상파, 6권 신인상파·후기인상파, 7권 19세기 후반 프랑스와 각국 화단, 8권 야수·입체·표현파, 9권 미래·파리·초현실파, 10권 현대구상·현대비구상·추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



김달진, 『서양미술 스크랩북』 10권, 1960년대 말~70년대 초, 27×19cm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 위치 및 연락처

- 주소 : (03015) 서울시 종로구 흥지문 1길, 4
- 전화 : 02)730-6216
- 팩스 : 02)730-9217
- 홈페이지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www.daljinmuseum.com
한국미술정보센터 www.artarchives.kr

● 관람안내

- 개관시간 : (월~금)10:00~17:00, (토)10:00~14:00
- 휴관일 : 일요일 및 국경공휴일